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THE Lead	온라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원자치도의회-시.군의회 한 목...	1
江原日報	03면	“총선 승리 위해 한마음으로 뛰자”	4
江原日報	온라인	박정하 국회의원, 부론면.호저면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5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입법지원 직원들 역량강화 나서	6
江原日報	11면	횡성 출신 농협맨 한자리에 “고향 농업 발전에 앞장설 것”	7
江原日報	14면	“제조업 유휴전력 이용 일석삼조”	8
강원도민일보	10면	김차섭 화가 춘천 작업실 문화공간 거듭난다	9
강원도민일보	15면	정선 임계면민의 날 한마당잔치	9
江原日報	16면	철원군 이장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	9
江原日報	02면	김진태 지사 “전세계인에 최상의 체험 제공”	10
江原日報	20면	“강원 산림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	11
강원도민일보	05면	뇌물수수 혐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2심서도 유죄	12
江原日報	01면	'글로벌 태권도 중심 도시' 춘천 국제적 위상 높인다	13
江原日報	01면	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13
江原日報	10면	WT본부 춘천유치 확정 오늘 ‘축하 갈라쇼’ 개최	14
江原日報	02면	춘천·인제·평창·정선 ‘고향올래 사업’ 선정	14
강원도민일보	23면	"지역언론-시군의회 협력 지역사회 비전 구체화 앞장"	15
강원도민일보	05면	한전 측 강릉산불 피해주민 찾아 사과..."왜 이제 왔냐" 울분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자성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고위험 음주율 심각한 수준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산업단지, 생산의 장 넘어 관광·여가 공간 돼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외교 역량 더욱 중요해졌다	19

2023년 08월 20일 (일)

자치의정

THE Leader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원자치도의의회-시.군의회 한 목소리

이형진 기자



지난 18일 권혁열 도의장이(왼쪽) 도의회 의장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환담 후 김일용 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 18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도의회 의장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환담이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환담은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출범 기념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혁열 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김용복 농수산위원장, 이무철 경제산업 부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이영욱 교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군의회의회장 협의회에서는 김일용 회장(고성군의장), 노이업 부회장(화천군의장), 이재용 부회장(원주시의장), 김명길 대변인(속초시의장), 박영록 홍천군의장, 심현정 평창군의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권혁열 도의장이 도의회 의장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환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김일용 회장은 “올해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다”며 “피해현장을 방문해 큰 위로와 도움을 주셨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도의회 방문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을 계기로 유대관계를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인사말에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태풍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시.군의회와 도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습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으나 지나가고 나면 잊고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8일 김명길 시군의장협의회 대변인이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이어 “9월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이다. 재난을 예상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대비해야 한다. 시·군과 도의회가 소통해 우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김일용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 환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김명길 대변인은 “격의 없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대민 접촉이 많아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위원을 잘 활용해 달라”며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은 정작 나와야 할 소외계층의 피해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다. 재난의 피해를 입은 소외계층은 지역의 회에 집행기관의 문턱이 높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김용복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재난에 대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김용복 농수산위원장은 “재난에 대비하고 복구하는 일은 지역 책임자의 의지에 좌우된다”며 “재난에 대비하는 제안에 대해 ‘그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군의회와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재난 현장을 돌아보면서 도의원, 시·군 의원의 상생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지난 18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도의회 의장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환담이 진행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권혁열 의장은 “이즈음 49명 도의원은 지역구 예산 마련에 고심한다. 선출직은 저마다의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며 “우리 모두가 그 역할에 충실한다면 어느 곳보다 발전하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의 사정을 잘 알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환담은 처음 마련된 행사다. 이번 환담을 계기로 소통을 위한 상호방문의 기회를 늘여갈 방침이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종합 03면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일편도심(一片道心) 충선기획단(단장 : 김길수)이 지난 18일 원주시의회에서 현장순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총선 승리 위해 한마음으로 뛰자”

국힘 일편도심단 원주 회의 민심 청취·수해 복구 점검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일편도심(一片道心) 충선기획단이 지난 18일 원주를 찾아 총선 압승 의지를 다졌다.

충선기획단은 이날 원주시의회에서 도당위원장인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김길수 충선기획단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순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시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22대 총선 필승 전략과 세부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14일 원주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강원현장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해 원주권 발전 전략을 내놓은 만큼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충선기획단 현장 회의는 지난달 26일 영월을 방문해 강원 남부권 지역 여론을 수렴한 데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충선기획단은 다음 달부터는 영동권 지역 민심 청취에 돌입, 태풍 카눈 피해 복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22대 총선 승리와 강원 권역 의석 전석 확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일편도심 충선기획단장은 “지역 주민들의 솔직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향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20일 (일)

사회

박정하 국회의원, 부론면·호저면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주민 대상 의정활동 보고 및 의견 청취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18일 부론면과 호저면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국회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원주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18일 부론면과 호저면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 의원은 양 지역 현안인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UAM) 산업생태계 조성'과 '만종~점실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입법활동과 예결위 활약상 등을 소개하며, 지역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연일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이 손을 잡아주신 만큼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부의장과 조창휘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시·도의원이 참석해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과 의견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 태장1동(오전 10시)·태장2동(오후 2시)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간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0일 (일)

종합

강원자치도의회, 입법지원 직원들 역량강화 나서

22~23일 세미나실에서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 입안 역량 조기 확보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22, 23일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지원관, 법제관을 비롯해 7개 전문위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에 대한 입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되며 국토계획법, 농지법, 군사기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등 강원특별법 4대 규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위임사항 등을 다룬다. 도의회는 도정전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역할을 넘어 정책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이 특별법 개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특별법상 4대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 위임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비회기를 활용,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의회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11면

황성 출신 농협맨 한자리에 “고향 농업 발전에 앞장설 것”

황성군·농협 농업발전 포럼

황성 출신 농협맨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 사랑 실천과 농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NH농협중앙회 황성군 지부와 지역농협 조합운영 협의회는 지난 19일 공근면에서 ‘2023년 황성군·NH농협 농업발전 포럼’을 열고 지역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군수, 한창수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표한상 군의회부의장, 김은숙·박승남 군의원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박상용 농협중앙회 상무, 김기찬 농협중앙회 광화문기업센터장 등 황성 출신 출향농협인들을 비롯해 조경희 NH농협 황성군지부장과 김용식 동황성농협, 임

원규 안흥농협, 최순석 둔내농협, 김장섭 공근농협, 엄경익 황성축협 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막바지 개정 논의 중인 농협법이 농촌지역 농협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국회에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상무는 “농협에 근무하는 황성 출신 선후배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향 사랑을 다지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해마다 마련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경희 지부장은 “김명기 군수가 농협 양구군지부장으로 재직할 때 황성 출신 농협 선후배 모임을 만들었는데 2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고향 발전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성=유학렬기자 hyyoo@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14면



◇동해상공회의소(회장: 김규태)가 주최한 ‘이철규 사무총장 초청 전력 기업 정책 간담회’가 지난 18일 뉴동해관광호텔 3층 조선홀에서 열렸다.

“제조업 유희전력 이용 일석삼조”

이철규 국힘 사무총장 초청
동해 전력기업 정책 간담회

【동해】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초청 전력 기업 정책 간담회가 지난 18일 뉴동해관광호텔 3층 조선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정희수 삼척상공회의소 회장 등 동해·강릉·삼척상의 관계자, 최재석 도의원, 고석민 동해부시장, GS동해전력,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등 전력생산기업 관계자, 쌍용 C&E(주) 동해공장, (주)DB메탈 동해공장 등 전력 다소비

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심사와 시행까지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 협의회 개최를 통한 용역 등 정책 보고서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유희 발전 설비를 가동시켜 발생한 유희 전력을 지역 제조업체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발전사는 발전량을 늘릴 수 있고 제조업체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은 새롭에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론이 도출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10면

김차섭 화가 춘천 작업실 문화공간 거듭난다

김차섭기념사업회 1주기 추모식
내평리 분교 활용 문화사업 계획

속보=고(故) 김차섭 화가와 부인 김명숙 화가의 작업실인 춘천 북산면 내평리 분교를 공공영역으로 환원, 지역예술명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본지 8월 11일 20면 등)이 본격화됐다. 김차섭기념사업회(이사장 김명숙)는 지난 19일 춘천 베니키아베어스호텔에서 김차섭 화가 1주기 추모 행사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제철 시의원, 박홍수 EBS 초대사장 등 진지·동료·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부인 김명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홍희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과 정영목 서울대 교수, 이수형 청강문화산업대 이사장, 김운선 춘천미술협회장, 신철균·유병훈·김아영 작가 등 미술인과 작가들도 함께 했다.

이날 출범한 기념사업회는 지역과 미래세대에 기여하기 위한 내평리 작업실 활용 방안을 밝혔다. 뉴욕과 춘천을 오가며 활동해 온 고인은 이곳의 공공 환원 의지를 2019년 무렵부터 밝히고 방향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별세했다. 이후 꾸려진 기념사업회가 뜻을 잇기로 결정, 공공기관 및 연구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폭넓은 문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어린

이·환경·디아스포라 등의 주제가 큰 축이 될 예정이다. 김명숙 이사장은 “예술의 힘으로 건강과 영감을 준 춘천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김홍희 이사장은 “김차섭 작가의 창작 산실을 예술탐방 명소로 만들면 폐교활용의 모범 사례도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육동한 시장은 “내평리 분교의 장소성을 마음에 품고, 많은 미술계 리더들이 많이 모이신 이유를 새기면서 가치를 이어갈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여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15면



정선 임계면민의 날 한마당잔치 제49회 정선 임계면민의 날 한마당 잔치가 최근 임계면 장찬광장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김영덕·송수옥 군의원, 강신열 군체육회장,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16면



철원군 이장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 2023년 철원군 이장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철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종 철원군수, 박기준 군의장, 김정수 도의원, 이장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종합 02면

김진태 지사 “전세계인에 최상의 체험 제공”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달 앞... 각종 프로그램 준비 박차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곳곳에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된다. 주행사장 내 솔방울전망대와 전시관, 체험존, 힐링광장 등 곳곳에 40개가 넘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4개 시·군 부행사장에서도 20개가 넘는 연계행사와 축제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면

설악산 주요 봉우리와 울산바위, 동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솔방울전망대 걷기 체험은 완만한 경사의 데크를 따라 산책하는 듯한 기분으로 오를 수 있다. 중간 26개의 포켓전망대가 있어 오르는 동안 실

시간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함께 16m 높이의 슬라이드가 설치돼 있고 상층부는 매시 재질 바닥으로 조성돼 스티플감도 만끽할 수 있다.

푸른전시관 내에서는 키오스크 신청을 통해 향후 실제로 강원도 산에 나무를 심고 휴대폰으로 인증받는 ‘산림지킴이 프로젝트’, 미디어아트를 통해 가상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평화의 숲 미디어아트’, 백두대간, DMZ를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하는 ‘DMZ드론라이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유산관에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나무의 피톤치드를 체험해보는 피어나는

향기, 휴양치유관에서는 산신령과 대장금, 허준으로 분장한 배우들의 참여형 퍼포먼스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행사장에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행사를 마련한다. 고성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투어하는 DMZ 평화탐방투어, 속초 청초호 유원지 일원에서는 미디어아트와 홀로그램 로드, 불빛 터널, 국화꽃길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인제 용대관광단지 일원에서는 임산물한마당축제와 가을꽃축제, 미니정원 콘테스트를 연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장인 김진태 지사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 관람객들이 함께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올 가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에 오시면 강원도의 아름다운 숲속에서 즐겁게 체험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강원 산림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

김동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상임부위원장

한달 앞 다가온 엑스포 경제 효과 4,700억·고용 창출 5천명
산불 등 단계별 안전 매뉴얼 마련...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
울산바위 펼쳐진 설악산 자락 주 행사장 수만명 관람객 기대



◇김동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상임부위원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원산림엑스포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강원도가 대한민국 산림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한 달 뒤인 다음 달 22일 개최된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산림엑스포를 준비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제 대회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김동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상임부위원장은 “강원산림엑스포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강원도가 대한민국 산림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스포 개막 한달을 앞두고 만난 김동일 부위원장의 얼굴은 한껏 상기됐다. 조직위 직원 등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성과를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는 많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 관람객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은 아름다운 숲속에서 즐겁게 체험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가득하다”고 자랑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엑스포 성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엑스포 기간 열리는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2020년 타당성 조사에서도 나 오트 경제 효과는 4,700억원, 고용 창출은 5,000명 가량”이라고 했다.

수만명이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경찰, 소방,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보건소, 병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자연재해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다가올 수 있어 강풍과 산불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원산림엑스포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김 부위원장은 “산림의 생태, 역사, 문화, 산업 등 산림의 전반을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엑스포”라고 요약했다. 이어 “주 행사장은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진 설악산 자락의 강원세계잼버리 수련장이며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등의 부행사장을 더하면 아주 넓은 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랜드마크 조형물인 솔방울 전망대는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경사로를 설치했고 앞 공간은 다양한 축하 공연도 펼칠 수 있다”면서 “7,000㎡ 규모의 잔디밭에 조성한 힐링광장에는 트리하우스, 인디언 집, 캠핑 타프, 캠핑 캐러밴, 해먹 등의 시설도 설치했다”고 자랑을 이어갔다.

산림엑스포를 기대하는 도민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동일 부위원장은 “강원산림엑스포는 산림 전반을 주제로 교육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가득하다”면서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둘러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사회 05면

뇌물수수 혐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2심서도 유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당시 담당했던 강원도 청 간부급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에 사업자 B씨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

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물론 뇌물수수와 그대가성이 인정되고, A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둘러싼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재훈 ericjh@kado.net

2023년 08월 21일 (월)

종합 01면

江原日報

‘글로벌 태권도 중심 도시’ 춘천 국제적 위상 높인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확정

다양한 국제 이벤트 개최 비롯
마이스 산업 거점 성장 등 기대
본보-시 오늘 ‘문화 콘퍼런스’

속보=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를 확정 짓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권도 중심 도시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10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바탕으로 춘천시는 태권도 테마 관광 활성화, 태권도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춘천시는 지난 19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본보 지난 18일자 1면 등 보도)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WT 본부 이전 및 공동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WT는 2027년 송암동 의암호수변에 본부 건물 신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춘천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세계 태권도의 심장부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품었다”며 “춘천은 세계 태권도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며 태권도가 시민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강화, 글로벌 스포츠 머천다이즈(상품 유통 전략) 추진, 마이스(MICE) 산업 거점 등의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연맹이자 213개 회원국을 둔 WT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강화와 마케팅 활동은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WT 본부 건물에 다양한 체험, 전시 공간을 만들고 주변 문화자원과 접목한 스포츠 연계 관광 코스의 개발이 기대된다. 국제기구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 개최도 용이해졌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춘천시 비전에 맞춰 태권도를 통한 체·덕·지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된다.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에 맞춰 춘천시와 강원일보사, 축제 조직위는 21일 ‘2023 세계 태권도 문화 콘퍼런스’를 열고 WT 본부 유치에 따른 효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제언을 듣는다. 콘퍼런스는 이날 오후 1시30분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되며 이규석(WT 부총재)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023년 08월 21일 (월)

종합 01면

江原日報



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이 지난 19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WT 본부 이전 및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갖고 있다.

박승선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10면

WT본부 춘천유치 확정

오늘 '축하 갈라쇼' 개최

【춘천】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중반을 넘어서 순항하고 있다.

춘천시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축제장 내 수상 특설무대에서 WT본부 춘천 유치 확정 축하 갈라쇼를 개최한다. 이날 갈라쇼는 DJ 공연, 랩 공연, WT 태권도 시범단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대회 경기는 같은 날 실내 특설 경기장에서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주니어 경기와 장애인오픈챌린지 경기가 진행된다. 야외에 위치한 인라인경기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시범격과 경기가 열린다.

축제는 1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24일 폐막한다.

한편 시는 축제 폭염 대비 매뉴얼을 수립, 경기시간을 늦은 오후로 변경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jyh89@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종합 02면

춘천·인제·평창·정선 '고향올래 사업' 선정

정부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위케이션·로컬 유학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고향올래(GO郷 ALL來) 사업' 공모 결과 춘천, 인제, 평창, 정선 등 강원도 내 4개 시·군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총 21개 시·군이 지원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들 21개 자치단체에 향후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 선정됐다. 인제군은 도시 거주 학생들이 로컬학교에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전학하고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이주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에 포함됐다.

평창군은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시설을 구축하고, 근무 외 시간에 해당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교류 등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위케이션' 분야에 뽑혔다. 정선군은 다양한 층의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해 거주시설과 지역탐방 및 취·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율과제' 분야에 선정됐다. 서울=이무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인물 23면

“지역언론-시군의회 협력 지역사회 비전 구체화 앞장”

도시군의회의장협·본지 간담회
특자도 출범 후 언론사 첫 방문
협력관계 구축·성장 대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웅 고성군의장)가 강원도민일보를 방문, 특별자치도 시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각시·군의회와 지역 언론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8일 강원도민일보사를 방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언론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웅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부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강원도민일보사를 방문, 김중석 회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김명길 속초시의장 (대변인), 김진호 춘천시의장, 박영록 홍천군의장, 심현정 평창군의장, 노이업 화천군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언급,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의회가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으려면 언론역시 의회의 입장과 활동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며 “지역이 장기적인 발전방

향을 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재용 원주시의장은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언론과의 협력이 수시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현정 평창군의장은 “금강대기 축구대회는 강원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전국단위 행사”라며 “평창의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

면한다”고 말했다.

김명길 속초시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노이업 화천군의장은 “화천의 소식을 좀 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정진해달라”고 했다.

박영록 홍천군의장은 “업무추진비나 의정비 등의 현안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해 군민들에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일웅 회장은 “지역의 현안은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지역언론과 시·군의회가 자주 만나고 협의해 지역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민주주의는 곧 의회주의이고 의회주의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지방의회가 강해져야 한다. 그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사회 05면

한전 측 강릉산불 피해주민 찾아 사과... “왜 이제 왔냐” 울분

피해 펜션서 50여명 지사장 면담
“현장 목소리 본사에 전달” 약속
주민 “현실적 보상안 마련” 질타

김종필 한국전력 강릉지사장이 강릉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나 사과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종필 한국전력 강릉지사장 등 한전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포의 한 펜션에서 산불 피해 주민 50여명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대형산불 이후 4여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양훈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전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마련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한전 강릉지사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포의 한 펜션에서 산불 피해 주민 50여명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장은 “강릉시를 담당하

고 있어 진작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찾아왔다”며 “큰 피해를

본 산불 유족과 이재민들에게는 상당한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강릉지역을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본사에 보

고하고 검토하겠다”며 “강릉지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뒤늦게 찾아온

한전을 강하게 질타하고, 보상금과 배상금 등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민 A씨는 “결혼사진부터 아이들 사진, 나이 먹어가는 사진까지 모두 불에 타버려 과거의 추억이 모두 없어졌다”며 “왜 이제야 찾아왔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그 동안 뭐하셨냐? 한전에서 위로금이든 배상금이든 검토해주길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릉 대형산불과 관련해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과정에서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켰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연재 dusdn2568@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사설/칼럼 19면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자성을

-강원정치수준 반영 총선 앞두고 책임의식 있어야

강원도내 지방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단되면서 법적 처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행위로 인한 1, 2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 상실형으로 지방자치 의회 활동에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1년여 동안 사법기관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불필요한 노력이 소요되고 공석이 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견제 의무에 소홀함을 가져오고 주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비리가 끊이지 않아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도의회와 군의회 의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소수의 불법 행위라 해도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처사입니다.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현혹한 행위는 흑색선전과 비방전으로 파급돼 선거를 혼탁하게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돼 있기에 단기간에 사실을 바로잡아 알리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주민 알권

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가뭇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선과 보선을 앞두고 벌써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 결과 과거 총선에서 후보자와 선거캠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 및 관련 조치는 지역구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연루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채찍으로 삼아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해를 끼치는 불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책임의식이 남달라야 합니다.

공직선거는 국민 의사 대표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민주정치 실현 절차이기에 선거과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기회균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전체 과정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관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행태와 선거운동 양상은 그 지역 정치문화와 수준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잣대입니다. 강원정치 발전사의 한 단면에 선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1일 (월)

사설/칼럼 19면

강원 고위험 음주율 심각한 수준

-전국 1위 건강 적신호, 정책적 노력 필요

코로나19유행이 약화돼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자 고위험 음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인이 1년에 평균 52병의 소주를 마시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은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암 전문가들은 소량의 음주도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 강원도민의 건강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도민의 음주 위험성은 질병관리청의 조사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강원지역 고위험 음주율은 1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종(6.1%)과 비교해 10%p나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강원지역은 고위험 음주율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연달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이상이나 맥주 5캔, 여자는 소주 5잔 이상이나 맥주 3캔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도내 군 단위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정선이 2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양구와 홍천이 2,3위에 자리했습니다. 철원도 20%로 높은 수준을 보

였고, 강릉·삼척(18.7%), 양양·횡성(16.8%), 속초(1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일하게 영월(8.6%)만 전국 평균(12.6%)을 하회했습니다. 음주와 건강 수명의 연관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선과 양구의 건강수명이 각각 69.47세, 66.62세로 70세를 넘기지 못한 만큼 절주 등 건강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9개 시·군의 건강수명이 70세 이하여서 보다 적극적인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술을 담배와 같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흡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음주에 관해서는 관대한 문화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TV 광고에서 흡연 장면이 사라졌고, 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금연 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홍보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금연을 위한 노력만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당국의 깊이 있는 고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사설/칼럼 19면

산업단지, 생산의 장 넘어 관광·여가 공간 돼야

산업단지는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은 적기·적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개발연대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산업의 지식집약화, 산업 기술의 융·복합화, 기업 규모의 소규모화, 기업의 해외 이전, 기존 단지의 노후화·도심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산업단지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관리 기능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내 산업단지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강원자치도 내 산업단지 수와 입주업체 수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막대한 산업단지 부족이 일 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들의 지역 이탈 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2023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 따르면 도 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2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5개로 총 77개다. 이는 산단이 가장 많은 경남권(부산·울산 포함) 274개의 28%에 불과한 수치다. 또 산단 입주업체 수

도 서울의 경우 4곳에 11만9,652개에 달하지만 강원 자치도는 서울의 1.7%에 불과한 2,403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인원 수도 서울이 총 19만393명인 데 비해 도는 3만2,90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오래된 산업단지가 다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이나 시가지에 접하고 있어 입지 특성상 고부가가치의 도시형, 융합형 신산업들에 적합하다. 기능이나 지원시설들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업종들을 수용해 새로운 지역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선 단지별로 명확한 산업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업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식산업 업체들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조성이나 단지 내 기업지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을 보강하고 혁신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미니클러스터 구축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확충은 바뀐 대내외적 여건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그간의 산업단지를 재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는 생산의 장을 넘어 관광·여가의 공간이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터에서 배움터와 즐길 터가 될 때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고 숨통이 트인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1일 (월)

사설/칼럼 19면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외교 역량 더욱 중요해졌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매년 정상 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고, 안보·외교·국방·산업 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준(準)동맹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3국 관계가 새 전기를 맞았다.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

움했다.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아시아판 NATO’라는 평가다.

이제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로 동아시아는 물론 신(新)세계 질서 구축의 동반자가 됐다. 3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안보적으로 더 강력한 방과제를 확보한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 수립 후 75년 만에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이슈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첨단기술, 사이버, 해양, 보건, 여성 등까지 총망라된 현안들에 대해 ‘원팀’으로서 공동 대처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이 다른 3국 간 접근법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당장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상회의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여전히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다. 미래 국제 질서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부작용의 우

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한국의 외교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3국은 경제와 안보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했다.

3국 정상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
안보·경제 등 공동 대응 매년 정상회의 개최
원원 위한 실질적 결과물 조속히 이끌어 내야

따라서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핵무산 강화와 경제·기술에서의 ‘원원’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삼각 협력의 실질적 결과물들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두 개의 문건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북중러의 국제 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해 3국이 함께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